

다산포럼



성염 전 서강대 철학과 교수

“선상님, 어디 가쇼?” “문정 갑니다.” 합양읍에서 필자가 사는 문정으로 들어가는 군내버스 안. 술이 거나한 노인이 말을 걸었다.

“딸씨가 여기 사람 아닌데?” “네, 귀촌해서 그 동네 삽니다.” “거기 이 아무개, 강 아무개 사는데.” “이 선생님은 뭣마, 오정 살던 본인인데요?” “하, 그 친구도 조합장 하던 강 아무개도 죽었는지.” “...”

조금 있다 화제가 바뀌었다. “선상님, 나, 사람 아니요.” “네에?” “나 대한민국 육군 대위요. 내 나이 여든일곱이요. 근데 나, 사람 아니요. 보도연맹이라고 잡아 오면 다 싸 죽어 뿌렸소. 쫓령이든 장교든 대령이든, 그 짓 하고선 사람 아니요.” “...” “딸은 나더러 이런 말 저발 입 밖에 내지 말라카지만... 선상님, 나, 사람 아니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시켜야

필자한테서 위로 한마디 들을 겨를도 없이 버스는 대포마을 입구에 섰다. 차에서 내린 노인은 지리산 쪽을 한참 올려다 보더니 휘적휘적 마을길로 올라갔다. 3년 전 일이다.

지난달 25일 ‘지리산종교연대’의 일원으로 단성 외공리 골짜기를 다녀왔다. 실상사 스님들, 합양 목사님들, 산정 신부수녀님들, 남원 원불교 교무님들이 함께 하는 환경운동이다. 저 1951년 2월 설날 직후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 소정골에 280여 명(현재까지 유해가 발굴된 수)의 양민이 대한민국 국군의 카빈 총알을 맞고 죽어 묻혔다! 손을 뒤로 묶인 채 무릎을 꿇고 뒷머리에 총알을 맞고 죽은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였다. 사건 후 60여 년이 지나고 2008년 에야 발굴이 이루어진 유골들은 20대의 청년들, 여자들, 그리고 어린이들의 것이었다. 특히 어린이의 유골이 여성 유골의 늑골과 팔뼈에 꼬옥 안겨 있는 광경은 발굴자들을 눈물짓게 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모성애는 가해자들의 해악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어려움으로는 6·25 전쟁 전후해서 남한에서만도 대한민국 국군과 경찰의 손에 학살된 양

민이 1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외공리 희생자들을 두고는 가해자가 어느 군부대인지, 피해자가 어느 지역 사람들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의 구전으로는 장갑차를 앞세우고 여남은 대의 버스로 흰옷 입은 남녀를 실어와 소정골 골짜기로 끌고 올라가 ‘콩을 볶았다’는 것뿐.

한 주 전 판문점에서 있었던 북미회담을 지켜본 국민들의 안도감이 아니니! 또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한테 컷속말로 들려준 회담 내용을 흘리듯 ‘북미 간 적대 관계의 종식’을 언급한 발표는 인류사회 전체에 희소식이었다! 국제사회의 진솔한 반응은 저 회담 직후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만난 문화의 좋은 사례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메시지로 맨 처음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염원대로, 한반도를 70년간 에워싼 적대 관계가 풀려야 한다. 남북 간, 북미 간 적대 관계가 종식되어야 하는데 발맞춰, 아니 그보다 먼저, 남한에도 켜켜이 쌓인 적대 관계가 풀려야 한다.

합양 군내버스에서 만난 저 노인이 생

판 모르는 외지인에게 취중진담처럼 보도연맹 일을 털어놓은 까닭이 무엇일까? 살날도 많지 않아 자기 총에 죽어간 젊은이들을 저승에서 만나야 한다는 부담 또는 ‘인간에 대한 예의’ 때문이었다면,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부터 위임받은 중대한 사명 하나가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서둘러 출범시키는 일이다. 제주와 여순, 황해도 신천 등지에서 벌벌 떨며 울부짖던 양민들에게 총질한 범죄자들이 스스로 진상을 고백하고 하늘과 겨레에 용서를 받으며 눈감을 나들이 되었다. 그리고 만일던 군경의 손에 가족을 살해당하고서 까닭도 모르고 숨 죽여 살아온 이들이 이제 진상을 알고, 제사상이라도 번듯이 올리고서, 할 수 있다면, 기해사 집단에 용서를 베풀며 편안히 눈감을 나들이 되었다.

필자는 지난 주말 원주에 간 길에 ‘박경리 문학의 집’에 들렀다. 저 함양 노인이 젊어서 내갈길 그런 충질로 젊은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펜촉 하나에 의지하여 살다간 한 여인의 가난한 바람이 그 집 문간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모진 세월 가고/ 아아 편안하다 늙어서 이리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즐거분하다.”(박경리 ‘옛날의 그 집’에서)

기고

완도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산업 육성



신우철 완도군수

정부는 차세대 3대 주력 산업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도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연간 4조 원 이상 연구·개발(R&D) 비용을 지원하고 5년간 2조 원 이상 스케일업 펀드를 투자해 수출 500억 달러, 일자리 30만 개를 달성하겠다는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100만 빅 데이터로 환자 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 인공 지능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 등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을 결합하여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일자리 창출 등 혁신적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주력 산업이다.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화되면서 바이오헬스 산업은 잠재력이 큰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양한 바이오산업 소재 중에서도 해

양 생명 자원, 특히 해조류는 바이오헬스 자원으로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활용은 매우 미흡하다.

해양 생명 자원은 지구 생물종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활용율은 1%에 불과하다.

하지만,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생명 연장 및 삶의 질을 보장하는 만성 질환 치료제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해양 바이오 자원 및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때맞춰 우리 군은 해양 자원을 활용해 질병 예방, 재활 서비스로 의료·관광·바이오산업을 융복합 한 해양 치유산업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

완도는 국내 최대의 해양생물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는 해양 자원의 보고(寶庫)이다. 국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해양 바이오 소재중 식약처가 인정하는 고시형 원료는 67종이며(해양기원 소재 9종), 개별 인정형 원료는 263종(해양기원 소재 18종)이다. 해양 바이오 원천 소재는 기능성이 확인되어도 소재의 확보 실패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진 지역만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완도군은 전국 해조류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하여 소재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해양 바이오 산업을 시작할 수 있는 토대도 탄탄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내 최초로 해조류를 특화한 해조류 건강·바이오 특구로 지정되었다.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해조류연구소, 해조류 스파랜드, 전북연구소 등 기초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도 구축되어 있다.

이미 구축된 기반 시설을 활용해 151억 원을 투입하여 24개의 해양 생물 기능성 소재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두 번의 국제 박람회를 개최하여 해조류의 바이오 소재 활용 등 미래 산업화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오는 10월에는 프랑스 최대 해양 생물 연구소인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와 해양 바이오 기술을 교류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지역 발전 투자 협약 사업에 선정된 완도 해양 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1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양바이오 연구단지(3만 3000㎡) 조

성에도 착수했다.

바이오 연구단지에는 국제 공동 협력 연구소 설립, 10개 기업 유치, 해양 바이오 스타트업 센터를 건립하고 유럽 블루 벨리 파크와 연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해조류는 육상 식물과 달리 후코이단, 알긴산 등 다당류 및 고유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하여 바이오헬스 자원으로 그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해양 바이오 산업 소재로 활용할 해조류는 다시마, 김, 미역, 갈태, 곰피 등 연간 70만 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바이오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 해조류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소재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어장 개발 등 해조류 대량 양식 생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조류는 노인성 질환 치료제 개발,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등 국가적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활용될 빠질 수 없는 대표적 해양자원이다.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인 완도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꼭 필요하다.

社說

또 불거진 시험문제 유출 의혹 철저한 규명을

광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수학교사기 일부 학생들에게 기말 시험 문제를 사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시험 문제를 미리 본 학생들은 대부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어서 특히 시비마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북구의 한 사립고에서 지난 5일 치러진 기말고사 3학년 수학 시험 문제 중 다섯 개 문항이 사전에 교내 수학과동아리 학생들에게 미리 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문제를 출제한 수학교사는 지난달 모의 평가를 앞두고 수학 동아리 학생 31명에게 수학 문제가 나온 유인물을 나눠 주었는데, 이 유인물에 포함된 객관식 세 문제와 서술형 두 문제 등 모두 다섯 문제가 기말시험에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수학 동아리의 구성원은 모두 성적이 뛰어난 기숙사반 상위권 학생들이며, 유출된 다섯 문제 중 서너 문제는 내신 1~2등급을 가릴 수 있는 최고 난도

의 문제였다고 한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어제 이 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학교 측은 학기 초부터 동아리 학생들에게 제공한 수많은 문제 중 일부가 변형 출제돼 유출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성적 우수 학생들을 챙기기 위한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어 엄정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는 고교 세 곳에서 잇따라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흥역을 치렀다. 교육부는 시험지 관리 강화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추가 유출을 막지는 못했다. 시험 문제 유출 등 성적 관리 부실은 그 과장이 해당 학생이나 학교에만 그치지 않고 내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입시의 근간마저 흔들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정 학생을 위한 배려나 특혜가 있었는지 명백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본질 벗어난 청문회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어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과거의 청문회와 달라진 게 별로 없었다. 야당은 흡집 잡기에만 몰두하고 여당은 후보자 옹호에만 급급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지만, 정작 모두발언이 끝난 뒤 윤 후보자는 1시간30분 가까이 입도 떼지 못하기도 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원들이 청문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를 두고 여야 간 승강이를 벌였기 때문이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광방이 오갔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윤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는 윤 후보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기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후보자 관련 있는 것만 했으면 좋겠다”며 감쌌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의 윤석열 짝사랑을 눈 뜨고 볼 수 없다”는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발

언이 나오자 여야 간에 고성어 오가기도 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후보자를 추궁했다가 되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 사실을 추궁하면서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냐”고 따져 실소를 자아내게 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달 18일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윤 후보자는 “제가 몇 달 뒤에 누가 고발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항변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2000년 6월 처음 도입됐다. 대통령의 제왕적 인사 권한을 방지하고 깨끗하면서도 능력 있는 검증된 인사들을 뽑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 달리 인사청문회는 부실 검증과 무리한 의혹 제기나 인신공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법적인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無等鼓

그들은 한때 호남 정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호남의 천재’ 소리를 들으며 개혁 정치의 선봉에 섰던 천정배(6선·서구 을),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북심이자 정치 9단으로 불린 박지원(4선·목포), DJ가 인정한 인물이자 ‘4총4급’이라는 파란의 정치 역정을 써 온 박주선(4선·남동읍), 여수엑스포 유치 등 전남 동부권 발전을 이끌어 온 주승용(4선·여수을) 의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여기에 대중 넘어가지 않는 까칠한 성격에 ‘버럭 동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동철(4선·광산 갑),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으로 ‘예산의 달

해였다. 결국, 호남 중진들은 국민의당 창당을 통해 양당제의 정치 지형을 다당제로 바꿔 내는 지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중진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다.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분열되더니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분열 책임론과 함께 세대교체 바람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3선 이상의 ‘장기 집권’에 따른 정치적 피로감도 상당하다.

호남 중진

이들로 간다면 내년 총선에서 ‘전발’하지 않는 나는 성급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호남 중진들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병완(3선·남동갑) 의원도 있다. 이들은 개혁·진보 진영의 심장인 호남 민심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도전과 투쟁 또는 타협 등을 통해 정치력을 키우며 중진으로 성장했다. 지역적 편견에 맞서 왔던 그들의 정치적 중량감은 일반 의원들과는 ‘격’과 ‘갈’이 다르다는 평이다. 특히 DJ 노선을 정치적 뿌리로 두고 있는 호남 중진들은 민주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친노(친 노무현) 진영과 끊임없이 충돌

에게 내년 총선은 정치 역정에서 마지막 승부처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극적인 반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론’이 바로 그 출발점으로 꼽힌다. 일당 독점보다는 경쟁이 훨씬 낫다. 이는 민주당 독자 구도에서 호남 중진들의 분투가 요구되는 최소한의 이유다. 내년 총선, 호남 중진들은 과연 정치적 역량 결집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청춘 특·특

남을 돕기 위한 작은 용기



이효빈 동신대 디지털콘텐츠학과 2학년

여름 방학에도 대학생들은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향해 폭염보다 뜨겁게 달리고 있다. 자격증이나 토익, 한국사 공부는 물론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국제 행사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선배들을 볼 수 있다. 봉사활동도 기왕이면 취업에 위한 스펙이 될 수 있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한다고 느낄 수 있는 굵직한 행사가 터 나올지 모르겠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회나 행사장을 찾았을 때 불친절하거나 성의 없이 일하는 자원봉사자를 만나 불쾌했던 기억이 종종 있다. 당연히 그 행사와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아있을 리 없다. 봉사는 시작

하는 의도보다, 그 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학교에서 수련회 활동으로 요양원을 방문하게 됐다. 내 첫 봉사 활동은 자발적이지 않았기에 적극적인 필요가 없었다. 말동무를 해드리고 밥과 간식을 가져다 드리는 정도였다.

그런데 쉬울 것 같던 일들이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말이 통하지 않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고 혼자 밥을 드시지 못하는 분들은 밥과 반찬을 입에 넣어도 리면 절반 남게 뱉어 내기도 했다. 이가 없어 제대로 씹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아찌면 민폐였는지 모를 봉사를 계속 하다 보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안 흘리며 드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한 끝에 밥은 숟가락에 조금씩 올려 채워 드리고, 반찬은 여러 번 나눠 드실 수 있게 했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다. 그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점심 봉사 활동이 늦게 끝났지만 ‘절대(지난번)보다 수월했다’는 할머니의 말 한 마디에

설명하기 어려운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그때였던 것 같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마음과 자세가 봉사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처음 느꼈던 계기가 그날이었다.

또 하루는 비가 오는 날이었다. 평소 지나던 길이었지만 다른 날과 달리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 우산이 없어 억수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수레를 끌고 오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보였다.

순간, 엄청나게 갈증했다. 내가 든 1인용 우산은 혼자 쓰고 가도 쏟아지는 비를 막기에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 옷을 꽤 신경 써서 차려입은 날이었기에 절대 비에 젖고 싶지 않았다. 더욱이 그 골목에는 나와 할아버지 사이를 한 발 앞서 걷고 있는 두 명이 더 있었다.

‘혹시’라는 기대와 달리 그 두 명은 할아버지 옆을 그대로 지나쳤고 그들을 뒤따라가고 싶었던 나는 마음을 고쳐먹고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난 평정히 내성적인 성격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가는 게 어렵고 무섭다. 도움을 거절당해 받았던 상처가 있었기에 ‘혹시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주저하게 된다. 비를 맞으며 수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를 위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수고로움과 신경 써서 입었던 옷이 흠랑볼에 젖는 번거로움을 이겨낼 각오보다 그날 나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용기였다. 남을 돕기 위해선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했다.

봉사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만 봉사활동의 목적과 의도에 매몰될 때, 우린 그 쉬운 사실을 잘 쉽게 잊는다. 그리고 아주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작은 용기를 내보자. 봉사활동이라는 형식이 그치지 말고 성실하고 정성껏 그 시간들을 보낸다면, 우리도 뭔가를 더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政</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광)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 직구)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33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52	220-069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